

# 陳士鐸 命門說의 特徵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崔鐘弼 · 尹暢烈\*

## 對陳士鐸命門之說特徵的研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崔鐘弼 · 尹暢烈

通過對陳士鐸命門之說特徵的研究得出以下結論:

1. 命門爲先天之火, 且從概念上亦可爲先天之水火.
2. 命門之火可稱之爲先天之火, 腎火, 腎中之火, 無形之火, 眞火, 乾火, 原氣, 陰中之火, 水中有陽等; 而命門之水可稱之爲先天之水, 腎水, 腎中之水, 無形之水, 眞水, 原精, 陰中之水, 火中有陰等.
3. 眞水可生眞火, 眞火亦可生眞水, 兩者爲互生的關係. 強調了有形之火, 水克火, 但無形之火, 水生火.
4. 命門之火是一陽陷於二陰之間的坎卦象.
5. 人的生命活動靠水火而生, 而腎中的眞火眞水之命門是其本源.
6. 命門是運行十二經脈的主體, 是十二經之主, 且爲促使生成十二官功能的十二官之化源, 故爲十二官之主.
7. 命門的作用可影響整個十二官, 尤其是因火生土的關係, 對脾的功能的影響更大.
8. 人的生命之盛衰依靠命門之火, 故命門之火枯竭則人的生命將終結.
9. 吳崑, 張介賓等繼承了劉河間的主張, 既認爲自下向上數至第七節處爲是命門, 此處既爲小心.
10. 陳士鐸繼承上述學說和趙獻可之說, 主張七節之旁是小心, 且認爲此處既爲命門所在.

關鍵詞: 陳士鐸, 命門說, 先天之火, 小心.

## 1. 序 論

陳士鐸은 明나라 말기에서 淸나라 초기에 生存했던 사람으로 그의 본적은 浙江省 山陰(지금의 浙江省 紹興市)이다. 그는 평생동안 20여종의 醫書를 저술하였는데 現存하는 것은 8種이 있다.<sup>1)</sup> 이 중에서 黃帝內經의 체제를 모방하여 81篇으로 구성된 『外經微言』에는 그의 독창적인 의학

\* 交信著者: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42) 280-2601, yooney@dju.ac.kr.

1) 朴基兌, 陳士鐸의 生涯와 醫學著作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p. 68.

이론이 集中되어 있다. 이 책은 岐伯天師가 鬼臾區, 伯高, 雷公등 25명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特記할만한 내용은 陰陽五行說의 闡發, 六臟七腑의 主張, 命門說에 대한 強調 등이다. 命門學說은 難經의 36難과 39難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右腎說, 兩腎說, 兩腎之間說, 腎間動氣說, 產門精關說등 다양한 이론들이 發表되었다.

中國의 학자 陳新民은 命門學說의 爭論을 계통적으로 정리하여 右腎說, 腎間說, 兩腎說, 機能說의 네 가지로 나누었고 機能說을 주장한 대표적인 醫家가 陳士鐸이라고 하였다. 現代의 王新

華와 徐輝光 등도 역시 命門은 단순하게 하나의 解剖 부위나 실질적인 기관이 아니고, 또한 兩腎을 總稱하지도 않으며, 실제로는 腎機能의 하나라고 하였다.<sup>2)</sup> 따라서 陳士鐸이 주장한 命門說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의미 있는 고찰이라고 사료되어 이를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2. 命門은 先天의 水火이다

『外經微言』 命門眞火篇에서 “命門은 水火의 가운데 있는데 水에 속합니까? 火에 속합니까?”의 질문에서 대하여 岐伯은 분명하게 “命門은 火也라”고 대답을 하였고 또 命門經主篇에서도 “命門은 火에 속하니 先天之火”라고 하였다. 또 腎火는 無形之火이고 腎水는 無形之水라고 하여 명문은 腎臟속에서 작용하는 火니 無形之火로 先天之火이고 이와 반대로 無形之水는 先天之水라는 개념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外經微言』의 第五命根養生篇에서 “水火는 原相須也니 無火則水不安하고 無水則火亦不安이라(火는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고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으니 火가 없으면 水가 不安해지고 水가 없으면 火도 또한 不安해 진다)”고 하고 小心眞主篇에서 “先天之陰陽은 藏於命門이라”고 하여 水火一體性(水火相須性, 陰陽一體性)을 강조하고 있다. 命門眞火篇에서 “命門水火”라 하고 또 “窈窈冥冥하니 其中有神이오 恍恍惚惚하니 其中有氣하니 亦指命門也라(어둡고 어두운 가운데 神이 있고 황홀한 가운데 氣가 있다고 하였으니 또한 명문을 가리키는 것이다)”라 하였다. 命門經主篇에서 “先天之火는 非先天之水면 不生이라”하고 小心眞主篇에서 “命門者는 水火之源이니 水者는 陰中之水也오 火者는 陰中之火也라”하였으며 동편에서 “命門藏陰이 則藏陽也라”하고 “命門之火를 謂之原氣오 命門之水를 謂之原精이라”하여 水火는 分離될 수 없는 一體性이 있기 때문에 命門을 先天의 水火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命門은 先天의 火이지만 先天의 水火라는 개념도 통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진사탁의 명문학설의 중요한 특징은 命門의 水火 또는 腎水, 腎火를 先天之水, 先天之火 또는 無形之水, 無形之火로 보고 있는 점이다.

그는 命門經主篇에서 “腎火는 無形之火也오 腎水는 無形之水也니 有形之火는 水能克之나 無形之火는 水能生之라 火克於水者는 有形之水也오 火生於水者는 無形之水也라 然而無形之火는 偏能生無形之水 故로 火不藏於火하고 轉藏於水하니 所謂一陽이 陷於二陰之間也라(腎火는 無形之火이고 腎水는 無形之水니 有形之火는 水가 능히 火를 克하지만 無形之火는 水가 능히 火를 生한다. 火가 水에 克을 당하는 것은 有形之水이고 火가 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은 無形之水이다. 그러나 無形之火는 치우쳐서 無形之水を 생하기 때문에 火는 火에 저장되지 않고 도리어 水에 저장되니 이른바 一陽이 二陰의 사이에 빠져있는 모습이다)”라 하였다. 이로 보면 腎火가 곧 命門火이고 腎水가 命門의 水(小心眞主篇에서 命門之水를 謂之原精이라 하였다)이며 無形之火는 水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水에 간직되며 이를 坎卦의 象으로 비교하였다. 동편에서 그는 분명히 “先天之火는 非先天之水면 不生이라”하여 先天無形之火가 水에서 생겨남을 강조하고 있고 또 有形之火는 水克火하지만 無形之火는 水生火함을 特記하고 있다. 小心眞主篇에서 “陰中之水者는 眞水也오 陰中之火者는 眞火也라 眞火者는 眞水之所生이오 眞水者는 眞火之所生也라 水生於火者는 火中有陽也오 火生於水者는 水中有陽也라 故로 命門之火를 謂之原氣오 命門之水를 謂之原精이라(陰中之水는 眞水이고 陰中之火는 眞火이다. 眞火는 眞水가 생하고 眞水는 眞火가 생한다. 水가 火에게 생겨나는 것은 火속에 陰 <본문에는 陽으로 되어 있으나 陰으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이 있는 것이요, 火가 水에서 생겨나는 것은 水속에 陽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문의 火를 原氣라 이르고 명문의 水를 原精이라)”고 하였다. 이 내용은 命門火가 原氣며 陰中之火며 眞火며 水中有

2) 羅昌洙外共編著, 韓醫學總綱, 서울 醫聖堂, 2003. pp. 274~275.

陽이고, 命門水가 原精이며 陰中之水며 眞水며 火中有陰이며, 眞火가 眞水에서 생겨날 뿐만 아니라 眞水도 眞火에서 생겨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石室秘錄』의 十四論命門에서는 “命門者는 先天之火也니 此火無形하야 而居於水之中라 天下에 有形之火는 水之所克이나 無形之火는 水之所生이니 火克於水者는 有形之水也오 火生於水者는 無形之水也라 然而無形之火는 偏能生無形之水 故로 火不藏於火 而轉藏於水也라 命門之火는 陽火也니 一陽이 陷於二陰之間者也라(命門은 先天之火이니 이 火는 形體가 없어서 水의 가운데 居한다. 천하에 有形之火는 水가 克하지만 無形之火는 水가 生하니 火가 水에 의해 克을 당하는 것은 有形之水이고 火가 水에 의해 생겨나는 것은 無形之水이다. 그러나 無形之火는 치우치게 無形之水에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火는 火에 저장되지 않고 도리어 水에 저장된다. 命門의 火는 陽火로 一陽이 二陰의 사이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였다.<sup>3)</sup> 이는 命門經主篇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글자에 加減이 있을 뿐이다. 水不克火篇에서 陳士鐸은 有形之火는 離火이고 無形之火는 乾火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

### 3. 命門의 機能

陳士鐸은 사람의 생명활동은 水火에 의해서 생겨나고 그 근원은 腎中の 眞火와 眞水인 命門이라고 하였다. 즉 그는『外經微言』求母篇에서 “人非水火면 不生하니 火는 乃腎中之眞火오 水는 乃腎中之眞水也라 水火盛則經盛하고 水火衰則經衰라”하여 眞火와 眞水가 생명활동의 根源이 되며 女子들의 月經도 腎中水火의 盛衰와 직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外經微言』의 天厭火衰篇에서 그는 “腎中之火는 先天之火니 無形之火也오 腎中之水는 先天之水니 無形之水也라 火得水而生하고 水得火而長하

니 腎內之陰陽也라 水長火則水爲火之母오 火生水則火爲水之母라(腎속의 火는 先天之火니 無形之火이고 腎속의 水는 先天之水니 無形之水이다. 火는 水를 얻어야 생겨나고 水는 火를 얻어야 자라니 腎안의 陰陽을 말한 것이다. 水가 火를 기르면 水가 火의 어머니가 되고 火가 水를 生하면 火가 水의 어머니가 된다)”라 하였다. 이는 腎中之火가 先天之火로 無形之火이고 腎中之水가 先天之水로 無形之水인데 이들 사이에 互生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外經微言』의 天厭火衰篇에서 “人得水火之氣以生身하니 則水火는 卽人之父母也라 天下에 有形은 不能生無形也어니와 無形은 實生有形이라 外陽之生은 實內陽之長也니 內陽旺而 外陽必伸이라 內陽旺者는 得火氣之全也오 內陽衰矣면 外陽이 亦何得壯大哉리오(사람이 水火의 기운을 얻어서 몸이 생겨나고 水火는 사람의 父母가 된다. 천하에서 형체 있는 것은 無形을 生하지 못하지만 無形은 사실상 有形을 生한다. 外陽이 생겨나는 것은 실상 內陽이 자라는 것이니 內陽이 旺盛하면 外陽이 반드시 펼쳐진다. 內陽이 旺盛한 者는 火氣의 온전함을 얻은 것이오 內陽이 衰弱해지면 外陽이 또한 어찌 썩썩해지고 커지리오)”라 하였다. 이는 사람의 有形의 몸뚱이는 先天水火를 받아서 생하므로 內陽인 命門의 火氣가 왕성해야만 外陽도 썩썩하고 커진다고 말한 것이다.

命門眞火篇에서 “命門은 爲十二經之主니 不止 腎恃之爲根이오 各臟腑無不相合也라 少師曰 十二經에 皆有火也어늘 何藉命門之生乎아 岐伯曰 十二經之火는 皆後天之火也니 後天之火는 非先天之火면 不化라 十二經之火는 得命門先天之火則生生不息하고 而後可轉輸運動變化於無窮하니 此十二經이 所以皆仰望於命門하야 各倚之爲根也라 (명문은 12經의 주인이니 신장이 거기에 의지해서 뿌리를 삼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장부도 서로 합하지 않는 것이 없다. 소사가 이르기를 12經에 모두 火가 있는데 어찌 명문이 생해주는데 의지합니까? 기백이 대답하기를 12經의 火는 모두 후천의 火니 후천의 火는 선천의 火가 아니면 化

3) 柳長華主編, 陳士鐸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395.

生되지 않는다. 12經의 火는 명문 선천의 火를 얻으면 生生不息하고 이후에 운동과 변화를 무궁하게 전수할 수 있으니 이것이 12經이 모두 명문을 우러러 보아서 각각 의지하여 뿌리를 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12經脈은 後天之火가 있어서 運行不息하는데 이 後天之火는 先天命門之火를 얻어야만 生生不息하게 되므로 命門은 十二經之主가 된다는 뜻이다.

命門經主篇에서 “心得命門而神明應物也 오 肝得命門而謀慮也 오 膽得命門而決斷也 오 胃得命門而受納也 오 脾得命門而轉輸也 오 肺得命門而治節也 오 大腸得命門而傳導也 오 小腸得命門而布化也 오 腎得命門而作強也 오 三焦得命門而決瀆也 오 膀胱得命門而畜泄也니 是十二經이 爲主之官이오 而命門이 爲十二官之主니 有此主則十二官이 治하고 無此主則十二官이 亡矣라 命門爲主하고 供十二官之取資니 其火易衰하고 其火亦易旺이라 (心은 명문을 얻어 神明이 사물에 응하고, 肝은 명문을 얻어 謀慮作用을 하고, 膽은 명문을 얻어 決斷작용을 하고, 胃는 명문을 얻어 受納작용을 하고, 脾는 명문을 얻어 轉輸작용을 하고, 肺는 명문을 얻어 治節작용을 하고, 大腸은 명문을 얻어 傳導작용을 하고, 小腸은 명문을 얻어 布化작용을 하고, 腎은 명문을 얻어 作強작용을 하고, 三焦는 명문을 얻어 決瀆작용을 하고, 膀胱은 명문을 얻어 畜泄작용을 하니 이것이 12경이 주로 삼는 官이요 명문은 12官의 主가 되니 이 主가 있으면 12관이 잘 다스려지고 이 主가 없으면 12관의 작용이 무너지게 된다. 명문은 主가 되어 12관이 밀천을 취하는데 供給을 하니 그 화가 쉽게 쇠약해지고 또 쉽게 왕성해진다”라고 하였다. 이는 命門이 12官의 主가 되어 12官의 다스려짐과 위태로와 짐이 모두 命門에 매어 있다는 뜻이다. 小心眞主篇에서는 命門이 十二官之化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命門의 精氣가 고갈되면 水火가 모두 없어지고 陰陽이 분리되며 참호흡이 고르지 않게 되니 사람이 병들면 모두 죽게 된다 (命門之精氣盡則水火兩亡하며 陰陽間隔하며 眞息不調하니 人病輒死矣리라)고 하였다.

命門의 火는 특히 火生土의 原理로써 12官중에서도 脾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는 『外經微言』脾土篇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少師問曰 脾爲濕土오 土生于火니 是火爲脾土之父母乎아 岐伯曰 脾土之父母는 不止一火也니 心經之君火와 包絡三焦命門之相火가 皆生之라 然而君火之生脾土甚疏하고 相火之生脾土甚切이오 而相火之中에 命門之火尤爲最親이라 少師曰 其故何歟아 岐伯曰 命門盛衰는 卽脾土盛衰오 命門生絶은 卽脾土生絶也라 蓋命門이 爲脾土之父母는 實關死生이니 非若他火之可旺可微하며 可有可無也라 少師曰 命門火過旺은 多非脾土之宜어늘 又何故乎아 岐伯曰 火少則土濕하야 無發生之機하고 火多則土乾하야 有燥裂之害라 蓋脾爲濕土는 土中有水라 命門者는 水中之火也니 火藏水中이던 則火爲既濟之火니 自無亢焚之禍하야 與脾土相宜라 故火盛亦盛하고 火衰亦衰하며 火生則生하고 火絶則絶也라

소사가 묻기를 脾는 濕土이고 土는 火에서 생겨나니 火는 脾土의 父母가 됩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脾土의 부모는 단지 하나의 火일 뿐만이 아니니 心經의 君火와 包絡, 三焦, 命門의 相火가 모두 생한다. 그러므로 君火가 脾土를 생하는 것은 아주 성기고 相火가 脾土를 생하는 것이 아주 질실하며 相火가운데서도 命門의 火가 가장 친밀하다.

소사가 묻기를 그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命門의 盛衰는 곧 脾土의 盛衰이고 命門의 생함과 끊어짐은 곧 脾土의 생함과 끊어짐이 된다. 대개 命門이 脾土의 父母가 되는 것은 사실상 죽고 사는 문제가 관련되어 있으니 다른 火가 왕성하거나 미약하며 있거나 없는 것과는 같지가 않다.

소사가 묻기를 命門火가 지나치게 왕성한 것은 대체로 脾土에게 마땅하지 않거늘 또한 무슨 까닭입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火가 적으면 土가 濕하여 發生의 기틀이 없게 되고 火가 많으면 土가 말라서 건조해서 갈라지는 해가 있게 된다. 대개 脾는

濕土가 되니 土中에 水가 있다. 命門은 水中之火니 火가 水中에 갈무리되어 있으면 火는 既濟之火가 되니 항성해서 불타는 재앙이 없어서 脾土와 서로 마땅하게 된다. 그러므로 命門火가 왕성해지면 또한 脾土가 왕성해지고 命門火가 쇠약해지면 또한 脾土가 쇠약해지며 命門火가 생하면 脾土가 생해지고 命門火가 絶하면 脾土가 絶해진다.

위의 내용은 後天之本人 脾의 運化水穀하는 작용이 命門火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데 다른 火는 火가 적으면 土가 濕하여 발생의 기틀이 없게 되고 火가 많으면 土가 말라서 갈라지는 해가 있지만 命門의 火는 水中之火로 既濟之火가 되므로 命門火盛하면 脾盛하고 火衰하면 脾衰하고 火生하면 脾生하고 火絶하면 脾絶하게 되어 命門의 火가 脾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다.

#### 4. 陳士鐸은 小心이 곧 命門이라는 說을 主張하고 있다

張介賓은 『類經』22卷 第64注에서 “人之脊骨은 共二十一節이니 自上而下면 當十四節之間이오 自下而上이면 是爲第七節이라 其兩傍者는 乃腎俞穴이오 其中則命門外俞也라 人生은 以陽氣爲本하니 陽在上者는 謂之君火니 君火在心하고 陽在下者는 謂之相火니 相火在命門하니 皆眞陽之所在也라 故曰七節之傍 中有小心이라 하니라(사람의 脊骨은 모두 21節이니 위로부터 내려가면 14節에 해당하고 아래로부터 올라가면 第7節이 된다. 그 양쪽은 腎俞穴이고 그 가운데는 命門의 기운이 밖으로 나는 수혈이다. 사람의 생명은 陽氣를 근본으로 삼으니 陽이 위에 있는 것은 君火라 하니 君火는 心臟에 있고 양이 아래에 있는 것은 相火라고 하니 相火는 命門에 있으니 모두 眞陽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七節之傍에 中有小心이라고 한 것이다)”<sup>4)</sup>라고 하여 14椎아래에 있는 小心이 命

門이라고 주장하였다. 장개빈보다 앞서 吳崑도 그의 내경주석에서 이러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누구인가. 劉完素는 『素問病機氣宜保命集·病機論』에서 “左腎屬水하니 男子以藏精하고 女子以系胞하며 右腎屬火하니 游行三焦하야 興衰之道가 由於此라 故七節之傍에 中有小心이라하니 是言命門相火也(左腎은 水에 속하니 남자는 精을 藏하고 여자는 胞에 연계되어 있다. 右腎은 火에 속하니 三焦之氣가 游行하여 盛衰의 이치가 이것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七節之傍에 小心이 있다하니 이는 命門相火를 말하는 것이다)”<sup>5)</sup>라고 하여 최초로 七節之傍에 있는 小心이 命門이며 이 命門이 相火를 主宰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內經』의 본래의 의미와는 여전히 맞지 않는다. 첫째, 『內經』에서 脊椎의 마디를 셀 때 위로부터 아래로 세어 갔는데 『素問·氣府論』에서 “挾背以下至尻骨二十一節”이라 하였지 아래로부터 위로 계산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둘째 명문이라는 단어는 비록 『內經』에서 시작되었지만 『靈樞·根結』에서 “命門者는 目也라”고 분명하게 定義를 하였다. 『難經』36難에서 “左腎右命門”을 언급한 이후에 비로소 명문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內經』을 연구한 학자들은 七節之傍에 있는 小心은 결코 命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진사탁은 命門眞火篇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少師曰 命門之系人生死가 甚重이어늘 『內經』에 何以遺之오

岐伯曰 未嘗遺也라 主不明則十二官危의 所謂主者는 正指命門也오 七節之傍 有小心의 小心者도 亦指命門也니 人特未悟耳라

소사가 이르기를 명문에 사람의 생사가 매어 있는 것이 아주 중대한데 내경에서 어찌서 빠트렸습니까?

기백이 대답하기를 빠트리지를 았았다. 主不明

4) 張介賓原撰, 郭教禮主編, 類經評注. 中國 陝西科學技術出版社, 1996, p. 835.

5) 劉完素, 素問病機氣宜保命集. 서울 木杓社, 2000, p. 53.

則十二官危의 이른바 主는 바로 命門을 지적하는 것이고 七節之旁 有小心의 小心도 또한 命門을 가리키는 것이니 사람들이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6)

또 小心眞主篇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爲當日 命門이 爲十二官之主에 寄於何臟고

岐伯曰 七節之旁에 中有小心하니 小心이 卽命門也니라

위당의 이르기를 명문이 12官의 主가 됨에 어느 장에 붙어 있습니까?

기백이 대답하기를 七節之旁에 中有小心하니 小心이 곧 명문이다. 7)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金代의 劉河間이 처음으로 七節之旁 中有小心이 命門相火라고 주장한 이래 明代에 들어와 吳崑, 張介賓등이 이說을 계승하였지만 陳士鐸에게 이러한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인물은 趙獻可라고 생각된다.

### 5. 結 論

陳士鐸 命門說의 特徵에 대한 研究를 통해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命門은 先天之火이지만 先天之火라는 개념도 통용할 수 있다.
2. 命門之火는 先天之火, 腎火, 腎中之火, 無形之火, 眞火, 乾火, 原氣, 陰中之火, 水中有陽이고 命門之水는 先天之水, 腎水, 腎中之水, 無形之水, 眞水, 原精, 陰中之水, 火中有陰이다.
3. 眞水는 眞火를 生하고 眞火는 眞水를 生하는 互生의 관계가 있으며 有形之火는 水克火하지만 無形之火는 水生火함을 강조하고 있다.

4. 命門火는 一陽이 陷於二陰之間한 坎卦의 象이다.

5. 사람의 생명활동은 水火에 의해서 생겨나고 그 근원은 腎中の 眞火와 眞水인 命門이다.

6. 命門은 12經脈을 운행시키는 주체가 되어 十二經之主가 되며 十二官의 기능을 生하게하는 十二官之化源이 되는 十二官之主가 된다.

7. 命門의 작용은 12官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火生土의 관계로써 脾의 기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8. 사람의 盛衰는 모두 命門火에 메어 있는데 명문의 火가 고갈되면 사람의 생명은 끝나게 된다.

9. 吳崑, 張介賓 등은 劉河間의 주장을 계승하여 아래에서 세어서 7節되는 곳이 命門이고 小心이라 한다고 하였다.

10. 陳士鐸은 위의 學說과 趙獻可의 說을 계승하여 七節之旁이 小心이고 이곳이 곧 命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參 考 文 獻

1. 羅昌洙外共編著, 韓醫學總綱. 서울 醫聖堂, 2003.
2. 朴基兌, 陳士鐸의 生涯와 醫學著作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3. 張介賓原撰, 郭教禮主編, 類經評注. 中國 陝西科學技術出版社, 1996.
4. 陳士鐸, 外經. 大田 周珉出版社, 2004.
5. 柳長華主編, 陳士鐸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6. 劉完素, 素問病機氣宜保命集. 서울 木과土, 2000.

6) 陳士鐸, 外經. 大田 周珉出版社, 2004, p. 163.

7) 陳士鐸, 上揭書, p. 180.